

영리해진 괴물

류현진, 26일만에 등판...5이닝 5K 2실점 성공 복귀

커브·서클체인지업 등 다양한 레퍼토리 3회까지 무실점...7타자 연속 범타 유도 우타자 커터 안 통하자 곧바로 커브 승부 영리해진 피칭...살아있는 실전감각도 갖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30·LA 다저스)이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다.

25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네소타전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5안타 3볼넷 5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불펜의 ‘불쇼’로 승리는 날아갔지만 26일만의 등판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희망을 안겼다.

3회까지 완벽에 가까웠다. 1회 2사 후 미겔 사노에게 중전안타를 맞은 뒤 4회 선두타자 조마우어에게 좌전안타를 허용하기 전까지 7타자 연속 범타를 유도할 정도로 구위, 제구력, 로케이션이 모두 뛰어났다. 비록 4회 2사 후 갑자기 제구력이 흔들려 2실점했지만 집중력을 발휘해 5이닝을 제했다. 투구수가 79개밖에 되지 않아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었지만, 5회말 2-2로 맞선 1사 3루라는 역전찬스가 오자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류현진을 대타 체이스 어틀리와 교체하면서 경기를 마쳤다.

●건강한 류현진

후반기 첫 등판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는 6월 29일 LA 에인절스전에서 감습타구에 왼발을 맞았다. 부상 정도가 심하진 않았지만 투

구시 대답발에 타구를 맞아 우려가 컸다. 선발 자원의 여유가 있었던 구단은 부상자 명단(DL)에 그의 이름을 올리고 휴식을 취하도록 배려했다. DL에 오른 사이 두 차례 시뮬레이션피칭으로 컨디션을 조율했지만 자칫 실전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역시 ‘괴물’이었다. 최고구속 150km(93마일)의 빠른 공과 커브, 서클체인지업, 컷패스트볼(커터)을 적절히 섞어 상대 타자들을 요리했다. 직구 평균 구속도 145~146km(90~91마일)일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마운드 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강한 공을 던졌다는 게 고무적이다.

●영리한 류현진

류현진은 어깨수술 이후 저하된 구속을 커버하기 위해 커터를 사용하고 있다. 5.2이닝 8삼진 2실점을 기록했던 29일 에인절스전에서도 커터를 적절히 활용하며 좋은 결과를 냈다. 미네소타전에서도 우타자 상대 때 바깥쪽에서 몸쪽으로 휘어들어오는 백도어 커터를 활용했다. 그러나 커터 제구가 흔들리면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자 곧바로 제구가 잘 되는 커브를 과감하게 던졌다. 좌타자 상대로는 서클체인지업으로 타이밍을 뺏았다.

영리한 피칭은 성공을 거뒀다. 5개의 삼진 중 서클체인지업으로 3개, 커브로 1개를 잡아냈다. 특히 초구부터 커브로 과감하게 스트라이크를 잡으며 타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다양한 레퍼토리는 선발투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25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네소타전에서 선발 등판해 활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5이닝 2실점을 기록하고도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마운드에 올라 다음을 기대하게 했다. LA | AP뉴시스

코리안 빅리거 경기 결과 25일(한국시간)

류현진 LA 다저스



미네소타전(홈)

- ▶ 선발등판(승패없음)
- ▶ 5이닝 5안타 3볼넷 5삼진 2실점 2자책점
- ▶ 시즌 성적 3승6패 1세이브 방어율 4.17
- ▶ 팀 6-4 승

추신수 텍사스



마이애미전(홈)

- ▶ 선발출전(2번 우익수)
- ▶ 4타수 1안타
- ▶ 시즌타율 0.248(330타수 82안타)
- ▶ 팀 0-4 패

김현수 볼티모어



탬파베이전(원정)

- ▶ 결정
- ▶ 시즌타율 0.234(124타수 29안타)
- ▶ 팀 5-0 승

멀리 보는 롯데

린드블럼 투구수 70~80개로 제한
선발 정착 위한 충분한 시간 주기

당장의 이익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 롯데가 외국인투수 조쉬 린드블럼(30)에게 컨디션을 끌어올릴 시간을 충분히 주기

로 했다. 롯데 조원우 감독은 25일 사직 한화전이 우천 취소되기에 앞서 “3번째 등판까지는 린드블럼의 투구수를 70~80개로 제한할 것”이라며 “첫 등판 때도 투구수를 50개 전후로 생각했는데, 본인이 ‘4회까지 내가 막겠다’고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꾸준한 선발로테이션을 소화하면서 투구수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린드블럼은 기존 외국인 투수 닉 에디튼의 대체선수로 13일 롯데와 총액 47만5000달러(약 5억3000만원)에 계약했다. 복귀 후 첫 등판인 22일 광주 KIA전에서 4이닝 동안 62구를 던지며 2안타 3볼넷 무실점의 호투로 건재를 과시했다. 2015~2016 시즌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거둔 그 면모 그대로였다. 선발진의 붕괴로 고민이 컸던 롯데로선 최근 레일리의 상승세와 더불어 린드블럼이라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그러나 조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는 멀리 보기를 택했다. 린드블럼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4경기, 마이너리그에서 17경기에 등판했는데, 이 가운데 선발등판은 마이너리그에서 4차례 한 것이 전부다. 한 경기 최다 투구수는 99개. 최다 이닝은 6이닝이었다. 롯데가 린드블럼의 선발 정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후반기 팀 방어율이 1.74로 안정감을 보인 것도 코칭스태프가 조급해하지 않고 린드블럼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사직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김진욱 감독, 류희운의 1승이 반가운 까닭

(kt)

“젊은 투수들 성장엔 1승이 큰 밑거름
슬럼프 빠진 성곤이에게 좋은 자극제”
(정성곤)

kt 김진욱 감독은 후반기 간절한 바람이 있다. 젊은 선발투수들이 승리를 거두는 일이다. 투구 내용은 상관없다. 잘 던지면 좋겠지만 혹 그러지 못하더라도 타자들의 도움을 받아 1승을 챙겼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

김 감독은 올 시즌 주권(22)부터 정성곤(21) 류희운(22) 고영표(26) 등 젊은 선발투수들을

중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받은 선수는 고영표 정도지만 팀의 미래를 위해 여러 명의 토종선발을 키워야한다는 생각이 크다.

발목을 잡는 것은 ‘승수’다. kt 선발 투수들은 올 시즌 타자들의 득점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영표도 5월 13일 수원 NC전 이후 무려 10경기에서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다. 25일 수원 투산전에서도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불펜이 승리를 날렸다. 물론 그 역시 6~7월 흔들렸다. 그러나 이제 첫 풀타임 선발등판을 하고 있는 젊은 투수에게는 ‘부진’이 통과여파와 같다.



김 감독은 “피어벤더나 로치는 잘 던지고 승리를 못해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있지만 어린 투수들에게는 힘 빠지는 일일 것”이라며 “또 잘 못 던진 날 타자들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선수에게 티업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승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김 감독은 22일 고척 넥센전에서 5이닝 2안타(1홈런) 4삼진 2실점(1자책점)으로 승리투수가 된 류희운을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감독은 “팀이 이겨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젊은 투수의 성장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1승이어서 좋았다”며 “점수를 내준 타자들에게도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정)성곤이가 슬럼프에 빠져있는데 (류)희운이를 보고 분발하기 바란다”며 “1승의 어려움을 알고, 1승을 거두기 위해 내가 어떻게 던져야할지 고민하면서 투수는 발전한다. 그런 1승이 하나씩 쌓이면 선수도 성장하고 팀도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재현 기자

2017 평창 더위사냥축제

2017. 7. 28 ~ 8. 6(10일간)
평창군 대화면 더위사냥축제장(대화리 1150-1)

여는마당 : 2017. 7. 29(토) 14:00 더위사냥축제장

- ▶ 땀띠물 냉천수 체험 ▶ 지상 최대의 워터캐논
- ▶ 에어바운스 물놀이 ▶ 광천선굴 탐험 ▶ 썸머가요제
- ▶ 강냉이 음식 ▶ 가재잡기 ▶ 대관령한우 구이 등

평창군 홍보대사 신유와 함께하는
축제의 밤 : 7. 28(금) 19:00

주관 : 평창더위사냥축제위원회 | 후원 : 평창군, 대화면 기관·사회단체 등 | www.summercamp.kr | TEL: 033)334-2277